

스마트폰, 녹색불 켜지면 100% 충전된 것일까?



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. 외출할 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면 단순하게 전화기를 놓고 나온 것에 그치지 않는다. 최근 들어 스마트폰은 전화, 텍스트메시지, 인터넷, 네비게이션 등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를 대신해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. ‘물아일체’라는 말을 본떠 ‘폰아일체’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스마트폰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 없는 탓 때문이다.



하지만, 실제로는 배터리 충전이 덜 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. 충전기는 100% 충전이 되면 빨간색불이 꺼지고, 녹색불이 켜진다. 그러면 사람들은 완충전이 된 줄 알고 충전기의 플러그를 뽑는다.

문제는 여기 있다. 스마트폰에 녹색불이 켜지고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100%를 나타낸다고 해서 배터리가 완충된 것은 아니다. 충전율은 전압을 재 표시하는데 스마트폰의 배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리튬이온 하나하나를 모두 연결해서 전압을 잴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.

지난 16일 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2018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‘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현상’을 의미하는 ‘노모포비아(No-mophobia)’를 선정하기도 했다. 노모포비아는 ‘No mobile phone phobia’의 줄임말이다. 질병에 비유하자면 ‘스마트폰 공황장애’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케임브리지 측은 “기술적으로 지극히 향상된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되면서 현재의 인류는 스마트폰을 잃었을 때 개체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.”고 전했다.

그러다보니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게이지 수치가 아래로 떨어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빵빵한지부터 확인한다.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100% 이하면 100%가 될 때까지 꼭꼭 채우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사람도 적지 않다.

하지만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는 늘 생각보다 빠르고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마음까지 초조해진다. 배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닳는 것일까? 보통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

그러니까 배터리가 100% 충전됐음을 알리는 녹색불이 켜졌을 때는 배터리의 표면만 충전된 것이고, 내부까지 완전히 충전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배터리 표면의 리튬 분자들은 100% 충전됐지만 내부의 리튬 분자들은 70~90% 정도만 충전된 상태인 것이다. 물론 이 수치도 스마트폰의 기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
따라서 녹색불이 켜지더라도 충전기를 계속 꽂아두는 것이 좋다. 내부까지 완전히 충전시키려면 녹색불이 켜진 뒤에도 1~2시간 정도는 더 꽂아둬야 한다. 배터리 안의 리튬이온들이 농도 편차가 심해서 전압이 충분히 확산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.

1년 이상 지난 배터리의 경우는 내부 성능이 떨어진 만큼 더 많은 시간을 꽂아둘수록 더 많이 충전된다.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과충전이다.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지만, 정품이 아닌 충전기 등을 사용할 때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정품을 사용하

는 것이 안전하고, 과충전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.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. 바로 배터리 ‘수명’에 관한 문제이다. 배터리의 수명은 충전 게이지를 60~80%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길어진다. 이는 배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다. 수명이 가장 짧아지는, 즉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상황은 충전 게이지가 0%가 될 때까지 다 쓴 뒤에 충전하는 것이다.

요즘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 이전의 납축전지나 니카드 전지 등 과거에 사용했던 배터리는 0%까지 다 쓰고 충전하는 것이 나왔지만, 리튬이온전지는 과거의 전지처럼 사용 패턴을 기억하는 ‘메모리 이펙트’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배터리에 손상이 간다. 그래서 0%까지 닳기 전에 수시로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그렇지만, 이렇게 사용할 경우 ‘활용도’는 낮아진다. 활용도는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온 뒤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지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다. 즉 100% 충전한 뒤 얼마나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. 활용도를 높이려면 녹색불이 켜진 이후에도 1~2시간 정도 더 꽂아두는 것이 유리하다. 반대로 수명을 생각하면 완충전 자체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주므로 60~80% 정도까지만 충전하는 것이다.

결국 배터리 충전은 선택의 문제이다. 배터리를 오래오래 문제없이 사용하고 싶으면 평소 60~80% 정도로 충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쓰고, 한 번 충전해서 오래 쓰고 싶으면 녹색불이 켜져도 계속 꽂아두고 완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.

다행히 요즘은 자동차에서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고 사무실의 컴퓨터에 USB케이블로 연결해두어도 충전할 수 있다. 또 커피숍이나 식당 등 어지간한 업소에서는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 배터리로 인한 고민이 줄어들었다. 그래도 불안하다면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지참하고 다니는 방법도 있다.

대상포진 예방주사(Shingrix) 맞으러 꿀약국(Honey Pharmacy)으로 오세요!
처방전 필요 없습니다!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!

꿀약국 예방접종센터

- **Shingles(대상포진)**
- **Flu(독감)**
- Prevnar 13, Pneumovax 23(폐렴)
- Hepatitis A, Hepatitis B(간염)
- M-M-R(홍역, 볼거리, 풍진)
- Meningitis(수막염)
- Tdap(파상풍, 디프테리아, 백일해)
- Typhoid(장티푸스)
- HPV-Human Papilloma(인간 유두종)

가족같은 약국, 꿀약국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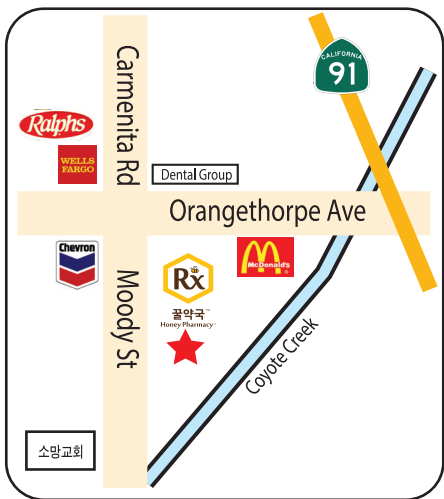
Kaiser Permanente, Rite Aid
10년 약사 경력!



약학박사 안젤라 권 / 약학박사 로렌 민
매니저 벤자민 유



꿀약국™
Honey Pharmacy™



Tel: 562.403.2332 **메디케어, PPO, HMO 받습니다**
Fax: 562.403.2331
7002 Moody St. #106, La Palma, CA 90623 **Honeyrx123@gmail.com**

카카오톡 상담 환영
TALK Honeyrx